# 2000년대 초반 로맨틱스타일 디자인 연구

**유은옥* · 정삼호**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1세기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에 대한 소외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리적 사고와 기계적 삶을 강요당할수록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향수 어린 추억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강력한 패션 트렌드로 등장한 로맨틱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에 등장한 로맨틱스타일과 이에 반영된 패션트렌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각의 디자인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상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맨틱스타일은 19세기 초 고전주의의 규범과 형식, 인습에 대한 반발로 탄생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복식의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시기의 여성복식의 특징은 과장되게 강조한 넓은 어깨장식과 풍성한 스커트단,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늘게 조인 허리선으로 수평적 미의식을 강조한 아워글래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귀족풍의 우아함을 표현했다면, 현대패션에 나타난 슬림한 롱앤린(long & lean) 실루엣의 로맨틱스타일은 현대사회의 기능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공예적인 장식기법으로 인간존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시즌에 등장하는 패션트렌드는 동시에 다양한 주제들이 예측되고 유행하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2000년대에 등장한 로맨틱스타일 또한 다양한 패션트렌드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네오히피 로맨티시즘, 레트로 로맨티시즘, 오리엔탈 로맨티시즘, 스포티 로맨티시즘 등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각각의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사람들의 심리의 반영으로 등장한 네오히피 스타일과 접목된 로맨틱스타일은 슬림한 실루엣과, 데님이나 면 레이스 등의 목가적인 분위기의 소재와 플라워 모티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과거 유행했던 양식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복고적 무드의 레트로 로맨틱스타일은 아워글래스 실루엣에 고급스런 소재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동양의 전통복식을 차용한 디자인의 오리엔탈 로맨틱스타일은 몸을 조이지 않고 떨어지는 직선적인 실루엣과, 동양적 무드에 어울리는 소재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으로 떠오른 스포츠는 일상복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이제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가장 트렌디한 것이 됐고, 로맨틱한 느낌의 장식적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룩을 선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패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화된 패션 주제들 속에서 로맨틱스타일이 옛것에 대한 재현이 아닌 현재 인간정서와 시대상이 반영된 퓨전스타일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의 패션트렌드와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로맨틱스타일 복식의 디자인을 각 주제별로 2점씩, 모두 8점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로맨틱스타일은 인간적 감성이 부각되는 시기마다 주기적인 유행을 되풀이하므로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